

최강 한국 여자골프 US오픈 '집안경쟁'

LPGA 'US 오픈' 9일 개막



박인비



최나연

박인비, 통산 메이저 6승·시즌 3승...강력 우승 후보

최나연, 2012년 우승 경험...올 2승 슬럼프 탈출

2015시즌 세계여자골프를 휩쓰는 한국군단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도 '집안 경쟁'을 예고했다.

올해로 70회를 맞는 US여자오픈은 9일(현지 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컨트리클럽(파70·6460야드)에서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을 기다린다.

미국의 내셔널타이틀 대회지만 한국 선수들은 다른 메이저대회와 달리 이 대회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다.

1998년 박세리(38·하나금융그룹)가 한국 선수로는 처음 우승한 이후 최나연(28·SK텔레콤),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 박인비(27·KB금융그룹) 등 모두 6명의 우승자를 배출했다. 이 중 박인비는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나 우승했고 올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박인비는 이번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위민스 PGA 챔피언십을 포함, 벌써 3승을 올리며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박인비는 2주 전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했지만 US여자오픈을 앞두고 잠시 쉬어갈 시간을 받았다.

통산 메이저 6승을 올린 박인비보다 시즌 2승을 거두며 슬럼프 탈출을 선언한 최나연도 우승 후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번 주 대회도 사실상 한국 선수들끼리의 경쟁이 될 전망이다. 2012년 이 대회를 제패한 최나연은 2013년과 2014년 시즌을 우승없이 보내

도 했다.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최나연은 "3년 전 우승한 후 욕심을 많이 부렸다"며 "이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인비와 최나연이 한국군단의 중추로서 이번 시즌을 이끌고 있지만 더욱 무서운 선수들은 새내기들이다.

과감한 승부수를 띄우며 데뷔 해에 2승을 올린 김세영(22·미래에셋)은 앞서 열린 두 차례 메이저대회 ANA인스퍼레이션과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뛰어난 퍼트 실수로 우승을 놓친 경험이 있다. 김세영이 세 번째 메이저대회에서는 어떤 경험을 보약 삼아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예비양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우승을 경험한 김효주(20·롯데)는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KLPGA 투어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전인지(21·하이츠진로), 이정민(23·비씨카드)도 출전해 세계 정상의 문을 두드린다.

세계랭킹 2위인 뉴질랜드 코포 리디아고(18)도 아직 가져보지 못한 메이저 우승컵에 도전한다. 또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스테이시 루이스, 크리스티 커, 브리트니 린시컴, 알렉시스 토폰슨도 한국 선수들과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인다. /연합뉴스



김세영



김효주

김세영 "메이저 3연속 실패는 없다" 우승 욕심

김효주, 中 금호타이어 오픈 정상...실전감각 최고

피로 누적·주전 공백, 패기로 넘는다

K리그클래식, 광주 FC 오늘 전복 원정

위기의 광주 FC가 한계에 도전한다. 광주 FC가 8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전북 현대와의 경기를 치른다.

앞선 서울전이 '반전의 무대'였다면 이번 전북전은 '한계에 도전하는 무대'이다. 5경기 연속 무패행진(3승2무)을 달렸던 광주는 2연패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앞선 서울전에서 이종민의 페널티킥을 지키지 못하면서 1-1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지만, 3경기 만에 승점을 보태며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다.

이번 전북전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안방인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내준 광주는 혹독한 일정 정을 이어가고 있다. 체력적인 한계가 찾아온 시점에서 클래식 리그 선두인 전북을 만나야 한다. 여기에 공수의 핵심이 김호남과 이종민이 경고누적으로 이번 전북전에 나설 수가 없다는 것도 악재다. 그야말로 이번 경기는 산 넘어 산, '한계에 도전하는 무대'인 셈이다.

두 축 김호남과 이종민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하다. 두 선수는 지난 시즌 공수의 핵심으로 활약하면서 팀의 클래식 승격을 이끌었다. 특히 불박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이종민은 올 시즌 20경기 전경기에 나오면서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전북의 빠른 측면 공격을 봉쇄해야 할 이



종민이 빠진 수비가 아쉽다. 이종민의 공백은 김영빈이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해서 채울 가능성이 크다.

이종민이 빠지게 됐지만 수비수 이도들은 퇴장 징계에서 복귀한다. 이도들은 날카로운 왼발 킥으로 광주의 세트피스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김호남의 공백에서는 새로운 자원의 투입이 준비되고 있다. 광주는 지난 6일 브라

질 출신의 최전방 공격수 까시아노를 영입했다. 이미 지난주부터 팀훈련을 소화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린 상태. 까시아노가 저돌적인 힘을 보여준다면 공격진에도 힘이 붙게 된다.

광주는 아직 전북전 승리가 없다. 통산 전적 1무4패를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첫 만남에서 첫 승리의 기회를 잡았지만 조용태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면서 2-3 역전패를

당했다. 빈틈을 놓치지 않았던 상대였다.

전북은 이동국, 에두 등 특급 공격수들을 앞세워 일찌감치 선두 질주를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앞선 대전 시티즌과의 경기에서 4-3으로 어렵게 승리를 거뒀다. 최근 6경기에서 11실점을 하기도 했다.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전북의 발을 묶으며 광주의 흐름대로 경기를 끌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불박이 3루수 될까

경쟁자 해리슨 부상...샌디에이고전 9회 1안타 끝내기 승 보탬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4번 타자로 나와 끝내기 승리에 보탬이 되는 안타를 터트렸다.

강정호는 7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에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강정호가 4번타자로 나선 것은 지난 달 22일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 이후 처음이다.

또 전날부터 이를 연속으로 선발출전한 강정호는 이를 연속 안타를 이어

나갔다. 시즌 타율은 0.258에서 0.257(202타수 52안타)로 조금 내려갔다.

강정호는 팀동료인 내야수 조시 해리슨이 부상자 명단(DL)에 오름에 따라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리슨은 전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서 7회말 2루 도루를 하다가 베이스에 손가락을 찌어 왼손 엄지 인대가 파열됐다. 해리슨은 부기가 가라앉는 대로 재진출을 받을 예정인데, 향후 6주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광주 FC 이종민 K리그 클래식 20R '베스트 11'

광주 FC의 베테랑 이종민(32)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7일 K리그 클래식 20라운드 경기의 베스트 11을 선정, 발표했다.

광주의 베테랑 수비수 이종민은 "상대의 집중적인 측면 공격에 맞서 헌신적인 수비로 방어를 했다. 페널티킥으로 강한 압박을 통해 전북의 발을 묶으며와 함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정 서울과의 대결을 벌인 이종민



은 전반 26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광주는 4분 만에 윤일록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이후 이종민을 중심으로 추가 실점을

다했다. /김여울기자 wool@

즐거운 영화 산책

<p>롯데시네마 구제일극장</p> <p>1관 테이내터제니스 2관 극비수사 3관 나의정신의학들/경성학교 사문진사녀들/소수의견 4관 테이내터제니스 5관 주리가월드/테이내터제니스(3D) 6관 연평해전 9관 주리가월드/학교괴담/저주의안령/리틀드래곤코코넛/리자루스 7관 세이카를 테이내터제니스 8관 세이카를 연평해전/소수의견</p> <p>단체 및 대관문의 : 070-4940-0523</p>	<p>컬롬버스시네마</p> <table border="1"> <tr> <th>현재상영작</th> <th>금주개봉작</th> </tr> <tr> <td>연평해전</td> <td>테이내터제니스</td> </tr> <tr> <td>주리가월드</td> <td>극비수사</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호비와엄마나무섬의비밀</td> </tr> </table> <p>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KTF, LGT 멤버십 본인 1000원 할인 현대M포인트 1인 2000포인트씩 2인까지 4000포인트 사용 (현대M 카드로 결제시 적용)</p> <p>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누르고-6-6-1-4-9(단기)로 안내를 따라가며 누르세요</p>	현재상영작	금주개봉작	연평해전	테이내터제니스	주리가월드	극비수사	호비와엄마나무섬의비밀		<p>컬롬버스시네마</p> <p>1관 테이내터제니스 2관 연평해전 3관 연평해전 4관 연평해전 5관 주리가월드 6관 테이내터제니스 7관 테이내터제니스 8관 테이내터제니스/호비와엄마나무섬의비밀 9관 극비수사 10관 호비와엄마나무섬의 비밀 /모든 비밀스러운것들/학교괴담 : 저주의안령/미르나</p> <p>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p>
현재상영작	금주개봉작									
연평해전	테이내터제니스									
주리가월드	극비수사									
호비와엄마나무섬의비밀										